

2015

연구보고서-12

I S S U E P A P E R

노년기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수행과제명 •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 (Ⅲ)
: 지역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과제책임자 • 박성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노년기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수행과제명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Ⅲ)
: 지역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과제책임자  박성정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4

 e-mail: sjpark@kwidimail.re.kr

요약

노년기에 늘어난 여가시간을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기에도 계속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하고, 일 하고, 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생산적으로,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박성정·최인희·김승연·윤자영·서제인(2015).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Ⅲ): 지역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사회활동에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참여는 노년의 삶을 생산적으로,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함. 길어진 노년기에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낼 것인가는 노년기의 가장 심각한 고민 중 하나이고, 노년층들에게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매우 중요함. 이러한 노년기 삶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부여가 커지고 있음.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참여활동의 한 유형으로서 공익을 추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음. 물론 봉사활동은 전 생애에 걸쳐 의미 있는 일이지만, 노년기에 그 필요성과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음. 내면적으로도 노년기에 봉사,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노년기의 사회참여,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WHO, UN, EU 등 국제기구들도 자원봉사를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권장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노년기에 일과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활동에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노년의 생산적 삶,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요소로는 건강, 일, 학습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이 거론되고 있음.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베이붐세대 퇴직자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 사업도 확대해가고 있음. 주요 정부 부처사업의 성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자원봉사사업의 참여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음. '1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자원봉사활동에는 여성이 54.9% 참여하였음. 문화체육관

광부의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에는 여성이 72.2% 참여하였음.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서는 60세 이상에서는 남성의 참여율이 여성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음.

둘째, 노인 사회활동(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여성이 67.7% 참여하였으나, 초졸 이하 학력자가 63.3%이고 참여자의 86.4%가 경제적 이유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셋째,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는 여성이 37.2% 참여하여 남성보다 참여율이 낮았음. 행정자치부의 퇴직공무원 상록자원봉사단 '14년 참여자 중 여성은 21.1%이고, '14년 퇴직공무원 해외봉사단 중 50대 이상 여성이 3.9%, 50대 이상 남성은 12.9%임.

이상의 참여 특성을 보면, 여성의 일반 자원봉사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지만,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에는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음. 또한 일자리사업에 참여율이 높지만, 이는 노년층에 저학력, 빈곤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노년의 봉사, 사회공헌활동에도 저학력, 저소득, 경력단절 등 여성의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지역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하였음 만 60세-79세 노년층 남녀 조사결과 총 1,197사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음.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분석에는 일반인 조사 중 봉사활동경험자 사례 279명과 봉사활동경험자 부가조사 사례 494명을 합하여 총 773사례를 분석하였음.

가. 지역사회활동 참여 실태

- 노년층은 취미로 친목활동, 운동, 종교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음. 여성은 취미로 친목 다음으로 종교활동에 많이 참여하는데 남성보다 참여율이 15.4%p 높음. 봉사활동에는 여성의 14.3%, 남성의 16.4%가 참여하였음. 여성은 종교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제외한 활동들에서는 남성보다 참여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사회 활동이 남성보다는 저조한 편임.

- 만 55세 이후 친목 목적 외의 단체활동 참여경험은 36.5%(여성 37.3%, 남성 35.6%)임. 종교단체 참여율이 54.5%로 가장 높고 노인단체는 23.1%임. 종교단체를 제외한 단체 참여율은 남성이 더 많고,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봉사활동 경험자의 단체활동 참여율이 높음. 단체활동에서 리더나 간부를 맡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0%로 남성(47.5%)이 여성(30.0%)보다 17.5%p 더 많음.
- 만 55세 이후 지역개발 및 운영에 참여경험이 있는 비율은 12.7% (여성 10.1%, 남성 15.7%)임. 여성의 경우 소득이 높거나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율이 높은 편임. 활동은 주로 거주지역의 동·리 단위가 59.2%로 가장 많고 여성은 그 비율이 더 높음. 나이 들수록 특히 여성들이 거주지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음. 지역의 개발·관리·의사결정과정에 노년층 참여에 대한 요구는 82.7%로 매우 높은 반면, 그런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69.8%에 달해서 지역의 일에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으로는 시간, 건강, 정보, 비용, 능력, 나이, 가족돌봄 문제 순으로 답하였음.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 가족돌봄, 능력, 정보 문제에 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사회활동 참여요구는 교류 94.3%(여성, 남성), 일 76.7%, 능력 발휘 활동 71.7%, 봉사활동 67.6%, 교육 참여 65.0%, 모임과 단체 가입 63.5%로 매우 높은 편임. 나이들수록 사회활동 참여요구는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일에 대한 요구는 75-79세에도 60%를 넘어서, 노년층이 교류 요구 다음으로 일 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사회관계는 모임보다는 가족·이웃·친구 중심의 교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외로움, 소외감을 느낀다’에 24.6%(여성 24.6%, 남성 24.7%),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우울하다’에 21.9%(여성 23.1%, 남성 20.5%)가 답하였음.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거주지역의 고령자 친화 환경에 대해서는, 주거나 보건복지 환경에 비해 교육, 사회참여, 취업 환경 만족도가 낮음.

나. 봉사활동 참여 실태

- 만 55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을 한 경험은 응답자의 23.3%로 나타났음. 여성은 21.6%, 남성은 25.3%로 남성이 3.7%p 참여경험이 더 많았음.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2014년 8월~2015년 7월)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5.3%(여성 14.3%, 남성 16.4%)임. 만55세 이후 봉사활동 경험자들에게 참여의 가장 큰 동기는 ‘삶의 의미, 보람을 찾고 싶어서’(전체54.9%, 여성 57.1%, 남성52.8%)였음. 향후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은 46.0%(여성 42.2%, 남성 50.2%)로 지난 1년간 참여율에 비하면 매우 높음.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여성의 경우 향후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 요구가 높음.
- 만 55세 이후 참여한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은 ‘가사, 청소 등’의 활동 유형이 4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 복지관련 활동’(37.8%)이었음. 희망하는 활동분야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보건, 복지관련 활동’ 분야에 대한 여성의 희망률은 64.2%로 가장 높고, ‘가사, 청소 등’ 활동은 53.4%, 환경관련 활동 35.8%, 문화활동 22.4%, 교육활동 11.9% 순으로 답하였음. 남성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분야는 ‘환경관련 활동’(53.2%)이고, ‘보건, 복지관련 활동’도 48.6%가 희망하고 있음.
-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서의 어려움으로는, ‘건강, 시간, 비용 등 개인적 여건문제’가 63.2%(여성 72.5%, 남성 54.9%)로 가장 많았음.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 시간, 비용 등 개인적 여건문제’(17.6%p)와 ‘지식, 기능 등 역량의 부족’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답한 것은 ‘정보 제공 및 활동기회 연계’(43.6%)이고, 다음으로 ‘관련 단체, 모임에 참여’(24.9%), ‘관련 교육’(21.1%), ‘보상’(8.9%) 순이었음.
-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음.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보다는 소득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가 80.5%로 봉사활동이 노년에 의미가 크지만,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역량을 자기평가식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과 시간 외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은 낮은 편임. 전반적으로 참여 인식에 비해 역량이 낮아 활동을 위한 준비교육 필요성이 큼.
-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생산적 노년욕구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활동에 참여한 경우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생산적 노년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3 정책제언

1)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과제

제안 1) 노년전기 여성 5060세대의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강화

노년 전기 또는 예비 노인기인 50-60대에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70대 이후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그러나 50대 후반~60대 여성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음. 여성회관도 40대, 50대 여성이 주 이용자이어서 60대 여성이 가서 어울리기 힘든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한 비율도 60대는 낮은 편이고, 70대에 이용률이 크게 높아짐.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주로 70대 이상이 많이 활용하는 편이어서,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사이 노년전기 노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함. 시니어클럽 이용률도 매우 낮아 전체 60-79세의 4.9%(여성 5.2%, 남성 4.6%)에 불과하여 노년층의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식과 정보 인지율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일반 성인들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60대를 받아들이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실질적으로 60대는 교육, 여가, 문화, 복지,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지원기관, 교육기관 등에서도 5060세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50대 후반에서 60대 노년전기에 있는 노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여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제안 2) 노년층 활동정보의 여성친화적 생활밀착형 제공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보 제공이 45.7%(여성 46.5%, 남성 44.8%)로 가장 많았음. 또한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답한 것도 ‘정보 제공 및 활동기회 연계’가 43.6%(여성 42.5%, 남성 44.7%)로 가장 많았음. 반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겪는 어려움으로 시간과 건강문제 다음으로 “활동정보를 잘 모른다”가 18.9%(여성 20.8%, 남성 16.7%)이었고,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역량을 조사한 결과, ‘나는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다’가 32.6%(여성 29.8%, 남성 35.8%)로 정보 인지 및 활용력이 매우 저조하였음. “어디서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 참여의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무엇보다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임. 여성들이 자주 들르는 곳에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여성들은 거주지 근거리 활동을 선호하므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인터넷에 취약한 노년층을 배려하여 인쇄물로 된 생활정보지를 제작하여 은행, 마트, 복지관에 비치하거나 노인가구에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함.

제안 3)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 및 비용 지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겪는 어려움 가운데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에 15.4%(여성 18.4%, 남성 11.9%)가 답하여 활동을 하기 전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해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하다’에 32.7%(여성 33.4%, 남성 31.9%)가 답하여 교육요구를 뒷받침하고 있음.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역량을 조사한 결과, ‘나는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46.6%)(여성 40.9%, 남성 53.0%), ‘나는 전문적인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34.6%)(여성 27.6%, 남성 42.5%)로, 활동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편임. 여성은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전문적 역량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요구가 더욱 큼. 봉사활동 참여자의 58.9%(여성 63.0%, 남성 55.0%)는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였고,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98.7%(여성은 98.3%, 남성은 99.1%)가 ‘그렇다’고 하여 교육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심층면담에 참여한 상당수의 노년 여성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대체로 개인비용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특히 비용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료나 저비용 교육 및 훈련 기회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심층면담에 참여한 상당수의 노년 여성들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관리자), 동료들과 갈등상황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바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에 대인관계기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제안 4) 독거여성 등 노년층 소외를 막는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외로움, 소외감을 느낀다’에 24.6%(여성 24.6%, 남성 24.7%),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우울하다’에 21.9%(여성 23.1%, 남성 20.5%)가 답하여 응답자의 약 1/5 이상이 정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며, 여성은 70세 이후 남성은 65세 이후 소외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특히 비취업 여성, 무배우 여성, 봉사활동 경험 없는 여성의 소외감, 우울감 비율이 높게 나타나, 노년기 소외감과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와 치료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사회관계는 모임보다는 가족·이웃·친구 중심의 교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활동하는 모임이 있어 외롭지 않다’에 57.6%(여성 56.2%, 남성 59.3%)만이 답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데 문제가 있는 비율이 30.7%(여성 30.2%, 남성 31.1%) 정도로 가족·이웃·친구 중심의 사회관계를 확대하고 세대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세대 간 교류를 위해서는 노년층의 대인관계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호 의식 격차를 줄여야 함.

제안 5) 노년층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으로는 ‘나이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에 답한 비율은 9.4%(여성 10.2%, 남성 8.4%)임.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 이미지 개선’을 택한 비율은 18.0%(여성 18.3%, 남성 17.8%)임. 현재 우리사회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호감, 연령차별주의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분위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임. 특히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있어 노년기에 여성은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음. 따라서 사회적으로 노년층의 이

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사회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지지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노년층도 젊은 세대의 사고와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과 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제안 6) 성인지적 고령자 참여 지역사회 환경 조성

만 55세 이후 지역개발 및 운영에 참여경험이 있는 비율은 12.7%(여성 10.1%, 남성 15.7%)임. 지역의 개발, 관리, 의사결정과정에 노년층 참여에 대한 요구는 82.7%(여성 81.4%, 남성 84.2%)로 매우 높은 반면, 그런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69.8%(여성 69.1%, 남성 70.6%)에 달해서 지역의 일에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여성은 거주지 근거리에서의 활동을 선호하므로 우선 거주지에서의 활동기회를 마련하고 활동 범주를 점차 넓힐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거주지역의 고령자 친화 환경 가운데, ‘노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한다’(46.2%)(여성 48.7%, 남성 43.4%), ‘노년층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38.3%)(여성 40.6%, 남성 35.6%), ‘노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32.7%)(여성 33.7%, 남성 31.5%), ‘노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에 만족한다’(30.6%)(여성 30.6%, 남성 30.6%),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모임이 많이 있다’(29.3%)(여성 29.9%, 남성 28.6%)에 만족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함. 주거나 보건복지 환경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교육, 사회참여, 취업 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여성들의 문제와 이슈를 발굴하여 성인지적 지역환경을 조성하도록 접근해야 함. 예를 들어, 노년여성들이 집안이나 활동공간에서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문제를 이슈로 다루고 이에 대한 대응도 강조되어야 함.

2)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위한 과제

제안 7) 퇴직여성의 재능을 활용하는 전문봉사기회 확대

우리사회에서는 노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이 노년기에 사장되는 문화가 지배적임.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책요구 중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에 대한 요구가 30.8%(여성 28.5%, 남성 33.5%)로 나타나 노년층의 약1/3 가량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희망하였음.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서는 ‘단순한 노력봉사도 의미가 크다’에 85.1%(여성 84.4%, 남성 85.9%)가 동의하고,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에 68.3%(여성 65.2%, 남성 71.9%)가 동의하여 노력봉사에도 의미를 부여하지만 전문봉사를 선호하는 비율도 높음. 여성은 정부의 봉사활동사업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지만 사회공헌활동사업 참여율은 많이 저조함. 노년여성에게도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제안 8) 지역 노인활동 리더로 여성을 육성

단체활동에서 리더나 간부를 맡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0%로 남성(47.5%)이 여성(30.0%)보다 17.5%p 더 많음. 여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더 많음. ‘하고 싶었지만 능력부족으로 못했다’는 답이 30.6%(여성 35.5%, 남성 22.9%)로 노년여성들을 단체활동 리더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함.

사업 담당자들은 노년 여성이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 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리더십 역할 수행 시 필요한 역량(예: 리더로서의 소양교육, 대인관계 기술, 행정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음. 특히, 사회참

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직무 오리엔테이션, 사회적 책임감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젊은 시기부터 여성들이 봉사와 사회공헌에서 경험을 쌓도록 주부 봉사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 9) 여성시니어 봉사 및 사회공헌단체 및 소모임 지원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관련 단체, 모임에 참여’를 택한 비율이 24.9%(여성 24.6%, 남성 25.2%)이고, 노년에 ‘함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호회, 모임, 단체에 가입(활동)하고 싶다’는 비율은 63.5%(여성 61.1%, 남성 66.2%)에 달함.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관계를 확대하고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므로,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노년층들의 단체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노인단체는 신노년층의 흥미를 끌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다양한 기관들에서 신노년층들이 자발적으로 소모임들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신노년층은 SNS 활용이 가능한 비율이 높지만, 젊은층들로부터 모임 가입을 거부당하기도 하므로 온라인상 노년층을 위한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과거에 활발하게 운영되다가 쇠퇴한 여성자원활동센터와 같은 여성시니어 봉사 및 사회공헌단체를 육성하여 여성들이 역량을 집약할 수 있는 장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제안 10) 기관을 기반으로 한 여성봉사활동 활성화

향후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은 46.0%(여성 42.2%, 남성 50.2%)로 지난 1년간 참여율에 비하면 매우 높음.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여성의 경우 향후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 요구가 높음. 지난 1년간의 참여율보다 향후 참여 의사 비율이 30.7%p(여성 27.9%p, 남성 33.8%p)나 많아, 잠재적인 활동수요

를 활동으로 이끌어주는 정책이 중요함. 남녀 모두 선진국에 비해 봉사 활동 참여율이 낮은 편이고, 여성은 더욱 낮아 노년층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경로를 모두 택하도록 한 결과, ‘가족, 지인, 이웃 등을 통해서’가 32.6%(여성 34.0%, 남성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 소속기관을 통해서’(32.1%)(여성 26.5%, 남성 37.3%), ‘기관 홍보물, 안내문,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서’(21.6%)(여성 22.0%, 남성 21.3%), ‘종교기관, 종교모임을 통해’(21.6%)(여성 26.3%, 남성 17.3%) 순이었음. 종교기관, 직장 등을 통한 봉사활동 참여가 많으므로, 다양한 기관들을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여성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종교기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제안 11) 여성 봉사활동 분야의 다양화

만 55세 이후 참여한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은 ‘가사, 청소 등’의 활동 유형이 47.3%(여성 55.5%, 남성 3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 복지 관련 활동’(37.8%)(여성 44.2%, 남성 31.8%)이었음. 여성은 ‘가사, 청소 등’(55.5%), ‘보건, 복지 관련 활동’(44.2%), ‘문화 관련 활동’(14.7%), ‘환경 관련활동’(10.2%), ‘교육관련 활동’(7.8%) 순임. 향후 희망하는 활동분야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보건, 복지관련 활동’ 분야에 대한 여성의 희망률은 64.2%로 가장 높고, ‘가사, 청소 등’ 활동은 53.4%, 환경관련 활동 35.8%, 문화활동 22.4%, 교육활동 11.9% 순으로 답하였음. 현재보다 보건복지, 문화, 환경, 교육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활동분야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제안 12) 보상정책의 일관성 정립 및 노년여성 의식교육

봉사활동을 한 노년층 중 16.8%(여성 17.2%, 남성 16.5%)는 물질적 보상(현금, 상품권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을 통해서 받는 물질적 보상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봉사 및 사회 공헌활동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아무 보상도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41.1%(여성 37.3%, 남성 44.8%)의 비율로 가장 많았음. ‘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이라도 소정의 활동비는 줄 필요가 있다’는 34.4%(여성 37.0%, 남성 32.0%), ‘금전적 보상보다 비금전적 보상이 적절하다’는 12.5%(여성 12.1%, 남성 13.0%),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이었으면 좋겠다’는 10.6%(여성 12.1%, 남성 9.3%)였음.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41.1%) 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희망하는 의견(57.5%) 더 많고, 특히 여성들의 보상요구가 더 높음.

현장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이 오히려 대상자들 사이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음. 예컨대, 노인일자리 사업과 무급 봉사활동의 활동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참여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경제적 보상 유무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일부 자원봉사활동은 활동비 등의 실비가 지급되어 자원봉사 고유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임. 자원봉사의 경우 ‘무보수성’의 원칙이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자원봉사의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경우 참여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식, 예컨대, 교육기회 제공,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예: 명예의 전당 등재, 시상) 등의 비금전적 인정정보상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임. 자원봉사의 무급성의 의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사교육을 강화하고, 보상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리해서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자원봉사와 활동내용에 큰 차이는 없으면서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나 일자리의 사업내용을 차별화하여 참여자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함.

제안 13) 자원봉사지원기관의 참여자 지원서비스 체계화

면담결과, 봉사활동 과정에서 기관 담당자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기관 담당자들이 봉사자들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들도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호이해를 강화해야 할 것이임. 또한 노년 여성들이 봉사과정에서 경험한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예: 간담회, 고충상담 등)을 구축하여 노년 여성의 봉사활동 참여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제안 14) 노년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학습, 봉사, 일의 연계·통합 지원사업

봉사활동 참여는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19.3%, 여성 23.1%, 남성 15.8%)와 ‘일(취업, 창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22.1%, 여성 25.2%, 남성 19.3%)에 참여자의 약 1/5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봉사활동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음.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더 많음. 향후 사회활동 중 일을 하고 싶다는 요구는 76.7%에 달하였음. 일에 대한 요구는 75-79세에도 60%를 넘어서, 노년층이 교류 요구 다음으로 일 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보다는 소득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가 80.5%(여성 79.7%, 남성 81.3%)로 봉사활동이 노년에 의미가 크지만,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노년층의 다수가 희망하지만 여건은 가장 취약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함.

또한 노년기가 되기 이전에 가능하면 조기에 노후설계 상담과 교육에 참여하여 자신의 노후준비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함. 아직

우리 사회는 취업시장에서 연령차별이 심한 편이므로, 40-5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60대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노후 설계 및 준비교육을 통해 학습, 봉사, 여가, 일 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원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야 함. 사례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후 관련 분야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봉사활동을 통해 기술과 경험을 쌓은 후 창업에 이르게 된 성공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음. 이와 같이 교육참여자를 봉사활동으로 유도하고, 봉사활동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경제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통합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외롭고 무기력한 노년의 삶을 탈피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4 기대효과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노년여성의 사회활동, 봉사활동 기회 확대로 활기찬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